

신랄한 예배
친구인들 양 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우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 1:21)

대한한국교회
영광로 100-100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고난주간, 내일(21일)부터 토요일(26일)까지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롬 5:10)

우리는 사순절 기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새기며 특별히 선포된 모든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은총의 자녀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죄인입니다(마 16:24).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짐정 복 있는 자입니다(시 32:1,2). 우리의 영혼은 굶주려 있으며 굶주린 우리의 영혼(사 55:6-9)에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과 이를 위한 영적인 투쟁(골 4:17-25)이 계속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했던 마리아의 사역(요 12:1-8)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죄인의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야말로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롬 5:11).

특별히 우리는 내일(21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은총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고난주간에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회(마 1:35)에 더욱 온전히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성금요일(25일)에는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하루 금식(마 6:18)하시고, 금요찬양집회에 나오셔서 은총의 말씀과 특별 찬양,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셨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기 간: 내일(21일)~금요일(25일)
시 간: 새벽 4:50 ~ 5:30
좌 석: 금요집회 좌석

성(聖)금요일(25일) 하루 금식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금식

성(聖)금요일 집회(25일)

시 간: 저녁 7:00
내 용: 말씀 및 제3차 성찬식
특별찬양: (“성령가사의 철언”/합렐루야 찬양대·오케스트라)
좌 석: 금요집회 좌석

*휴강안내

이번 주간에는 구약장 영성훈련 및 구역예배, 수요성경공부와 전도대원훈련은 쉽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그릇(금요집회)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책임

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동시에 인간에게 자유가 있을까?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인간이 결정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이 인간에게 있을까? 이것이 무슨은 아닌가?

어떤 결정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그 결과의 인간에 대해 영향을 준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대하기 힘들다. 이 문제에 복잡하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어느 쪽 곧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냐 또는 인간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이 문제는 다른 문제로 파생된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예정론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론과의 문제 그리고 악과 은총의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및 일을 다 계획하셨을지라도 인간이 자기의 삶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일까?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사 15:24).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경역하시는 것을 폐하거나 돌이킬 수 가 없다(사 15:27).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셨고 상고부터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창 9:12,15).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창 24:19).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행해진 대로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어떠한 것도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사 40:25,26).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사 46:1,10).

하나님께서 그의 미리 정하신대로 우주 만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사 43:13).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개인들과 또 무리, 그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나 바울 등은 어머니 태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선택되었다(렘 1:4-5, 갈 1:15).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개인을 선택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에 관해 말씀하셨다(마 24:22, 24:30). 바울은 이 비밀을 설명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모든 형제 중에서 말미암아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베드로와 사도요한도 이 진리를 전하였다(벧전 1:1-2, 요 1:1).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

이 선택의 기준은 사랑과 관계가 있다(렘 1:4).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응이 되사 그 영의 신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렘 1:6,12,14). 이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동행하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탄의 손을 좌절할 그의 모든 창조에까지 이른다. 이 계획은 완전하다(잠 16:33). 과학적인 가능성과 통계도 만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실수나, 사고나,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즉 창조자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 구원반도록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제한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은 자들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배척한 자들이다(롬 9:14, 벧전 2:8). 질 그릇된 인간들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남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의욕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대로 적당하게 하셨느니라”(잠 16:4).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광복하게 하시는 지도 말씀하신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여 열려라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서고 고침을 받을새 하도라”(사 6:10).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라”(요 12:40).

EASTER

“... (38) ‘[You know of] Jesus of Nazareth, how God anointed Him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power, and [how] He went about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oppressed by the devil; for God was with Him. (39)’ And we are witnesses of all the things He did both in the land of the Jews and in Jerusalem. And they also put Him to death by hanging Him on a cross. (40)’ God raised Him up on the third day, and granted that He should become visible, (41) not to all the people, but to witnesses who were chosen beforehand by God, [that is,] to us, who ate and drank with Him after He arose from the dead. (42)’ And He ordered us to preach to the people, and solemnly to testify that this is the One who has been appointed by God as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43)’ Of Him all the prophets bear witness that through His name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receives forgiveness of sins.’” (Acts 10:34-43)

Today's Bible verses talk about a special meeting between Peter and a man named Cornelius and his family. Cornelius was a Gentile, a centurion of the Italian cohort, who lived in Caesarea, which is about 30 miles north of Joppa, the place where Peter was staying. He was a devout man, one who feared God with his entire household, and gave much alms to the Jewish people and prayed to God continually. One day, an angel of the Lord visited him and told him to send for Peter, which he did. As his servants approached Joppa, Peter saw a vision from God concerning unclean animals, and heard a voice that said to him, "Get up, Peter, kill and eat" (Acts. 10:13). Peter refused, so a voice came to him a second time saying, "What God has cleansed, no longer consider unholy" (Acts. 10:15). This happened three times before the vision ascended into the sky. Peter was greatly perplexed. As Cornelius' men knocked at the door, the Spirit told Peter to "accompany them without misgivings, for I have sent them Myself" (Acts. 10:20). Peter invited the men in, gave them lodging for the night, and the next day got up and went away with them and some of the brethren from Joppa to Cornelius' home in Caesarea.

The case of Cornelius was the first of its kind and crucial to the spread of Christianity. Jewish law forbade Jews and Gentiles to worship together, as Peter explained to the people assembled at Cornelius' home, "You yourselves know how unlawful it is for a man who is a Jew to associate with a foreigner or to visit him; and yet God has shown me that I should not call any man unholy or unclean" (Acts. 10:28). God bringing them together was a new revelation. He wanted Peter to preach His word, which He sent to the sons of Israel, preaching peace through Jesus Christ, to Gentiles. When Peter opened His mouth to speak, he explained to them God's plan through Jesus Christ. He said, "I most certainly understand now that God is not one to show partiality, but in every nation the man who fears Him and does what is right is welcome to Him" (vv. 34&35). This was Peter's first time preach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Gentiles. They were eager to hear God's message, and he was excited to give it. God prepared this special meeting for a purpose, and that purpose is the meaning of Easter.

Peter began his first sermon to the Gentiles by highlighting the events of the past. He told them straight away that the Jesus who God anointed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power, the One from Nazareth who went about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oppressed by the devil because God was with Him, died by hanging on a cross. The people of Jerusalem, which included the Israelites, Romans, and other Gentiles, had Him crucified. The high religious officials wanted the Messiah, who had no sin, and whom all greatly needed, killed. Peter's sermon emphasized the climax of sin. He

wanted to make sure that everyone understood the sinfulness of human nature. He wanted them to understand the terrible consequences of jealousy, hate, and pride.

The second part of Peter's sermon showed God's power of resurrection, "God raised Him up on the third day" (v. 40). God hates sin, and humans are sinners in need of God. The plan of the devil, through human intervention, was to destroy God's plan. Jesus died, so the devil's plan was a success. He did what he set out to do. He accomplished his objective. He could do no more, but God leads the orchestra. He is the great conductor who took the orchestra from its worst condition, and changed it to make the most beautiful of music. From the terror of the cross to the triumph of eternal life, the music plays on. The devil's book is closed, but God's book of glory is eternal. He is in control of our life. Through Jesus Christ, the Lord God allows eternal life to flow into poor sinful people. Peter's message explained all this, from the hanging on the cross to the resurrection. God resurrected Christ, Christ resurrects believers, and believers spread the news to unbelievers, so that they can receive resurrection life. This is God's triumphal orchestra, where there is forgiveness, and there is bright shining light from utter darkness. This is best of love and mercy from God.

Peter's sermon did not end with the resurrection. His message continued, "God raised Him up on the third day and granted that He become visible, not to all the people, but to witnesses who were chosen beforehand by God, that is, to us who ate and drank with Him after He arose from the dead" (vv. 40&41). God made witnesses to proclaim this gospel. Those who saw and experienced the resurrected Christ were "ordered to preach to the people and solemnly to testify that this is the One who has been appointed by God as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v. 42). They met the Savior and declared His gospel, which included His ascension, His sending of the Holy Spirit, and His controlling of human hearts. They understood that they were His chosen people sent to proclaim His message, His love.

"Of Him all the prophets bear witness that through His name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receives forgiveness of sins" (v. 43). The eternal way is now open. There is forgiveness of sin and restoration between God and man. Through Jesus Christ, we become spiritually new, and receive His Holy Spirit, which gives us the peace and power to witness His love to others. We can now share what He did, what He does, what He is doing, and what He will do. The Easter message is a wonderful blessing and opportunity. The cross is there, the resurrection is there, and the witnesses are there, where are you? Please stand and follow Jesus. Amen 🙏

다들 주일 설교

부활절

“...³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³⁹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⁴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⁴¹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⁴² 우리를 명하시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였고⁴³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행 10:34-43)



김성환 목사

오늘은 특별한 만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 가족의 만찬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라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 곳은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율리우스 30마일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고넬료의 하인들이 율리에 도착할 무렵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다”(행 10:13).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행 10:15).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후에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하인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느니라”(행 10:20). 베드로는 즉시 그들을 맞이하였고 다음날 아침 율리의 몇몇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복음전파를 위한 만남

고넬료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이전에 전혀 유례가 없었던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가 이방인에게 전파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는데는 유대인들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르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하자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 아무도 속되다 하지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행 10:28).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은 화평의 소식을 이스라엘 자손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여러 사람을 경외하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34,35절).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은 베드로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만찬을 예비하신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도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베드로는 먼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곧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 예수가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더 나아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시몬과 레오, 로마인, 다른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천국지도자들도 모두 한 패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통해 베드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 있는 죄성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기

를 바랬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질투와 미움, 자존심이라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베드로는 이어서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40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마귀의 계획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마귀의 계획은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의도대로 행했고 자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착악의 오케스트라를 택해 최상의 연주를 이루어내시는 위대한 지휘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책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책 은 하나님에 의해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천지의 주재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련하고 죄 많은 인생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일으켰습니다. 예수가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믿는 자들은 이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 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승리의 찬가입니다. 거기에는 한없는 용서가 있습니다. 철쭉 같은 어둠을 뚫고 내려오는 광명한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최상의 사랑, 최상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베드로의 설교는 부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40,41절).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증인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경험한 자들에게 “명하시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42절) 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제주를 만났고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것,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하신 것, 그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택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43절). 이제 영원히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곳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새물결 되었고 성령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성령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과거에 했던 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기쁨의 메시아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증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예수를 좇으십시오. 아멘

수요1부 예배 메시지

마리아의 사역

(요 12:1-8)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마리아의 사역은 예언적 사역이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역이었다.

나사로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 사이에 일어난 사건

마리아의 놀라운 사역은 나사로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보았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요 12:1). 이 사건은 예수의 죽음을 앞둔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곳에서 마리아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가장 잘 믿는 중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은 헌금 사용을 운운하여 비판하였다. 특별히 가롯 유다는 더욱 적절적으로 불평하며 비난하였다. 이에 경건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획하였다고(요 11:55-57). 이처럼 십자가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들의 모습과 말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게 보였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다(요 11:45). 우리는 재한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악한 영에 의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된다. 악한 영은 종교지도자들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요 11:47,53,57).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열망하던 메시지가 왔음에도 그를 죽이려고 할 뿐이었다. 이처럼 십자가를 볼 줄지 않은 자는 세상 사람들도 바로 더욱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록하다. 율바라다 라고 쉽게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 지금 곧 회개해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에 철저한 순종해야 한다.

마리아는 귀한 향유가 있었지만, 오히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향유를 깨뜨렸을 때, 자신의 마리아라고도 불리는 발을 닦았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가롯 유다는 빠른 계산을 하였지만, 이에 앞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름다움을 계산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사역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도 말은 하지만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잊어왔는가? 우리는 이기심으로 가득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은혜로 자신이 가진 진부를 주님 앞에 드러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가롯 유다의 반응과 예수의 대답

마리아가 향유유함을 부은 행동에 대해서 가롯 유다는 비난한다(요 12:4,5). 가롯 유다는 계산은 뻔했다. 그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맞는 말이다. 그러나 가롯유다는 마리아의 사역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예식이었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거기서 대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요 12:7).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가장 귀하게 사용한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치면 안 된다. 그러나 가롯유다처럼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등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나 너희 중한 한 사람을 마귀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너희 열등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요 6:70,71). 그리고 이 말씀대로 가롯유다는 사단의 조종을 받아 예수님을 반역한다(요 13:2,7).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진부를 드릴 때 마리아는 주님의 시간을 알고, 그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다. 마한가리보다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람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8-20). 예수님은 선교를 명하신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가? 평계대에 살고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 부르심을 설명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눈은 떠서 예수님만을 따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을 "팔 끝까지" 전하라고 맡기셨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진부를 드러야 한다. "온전히 나를 부인하며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소서."(고후 5:17).

장로 칼럼

십자가 은혜로 행하는 행정

진 홍웅 (행정위원장)



올해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더욱 쓰임받은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 동안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협력하여 왔다. 예배, 단기선교사 파송, 교직원별 전도, 미자랑 교회 지원, 거울 제정하고, 자원봉사 등이 그것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지만, 때 순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은혜가 필요한 교회 행정

교회행정은 일반 행정과 달리 행정력이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목회 행정이기에도 목회적인 관점과 인력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 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교회들의 경우 교역자들이 직접 행정을 맡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영적인 지도 외에도 정로들이 모든 행정을 관장하고 있다. 예배, 찬양, 교육, 전도, 선교, 봉사, 인사, 기획, 교육, 재정, 건축 등 모든 분야의 일들을 정로들이 먼저 기도한 후 논의하면서 결정하고 실행한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모습이고, 이를 통해서 교역자들이 묵언에 접할 수 있도록 한다(행 6:4). 이처럼 행정을 바르게 할 때 목회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익이 있다. 이런 결과로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위임목사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십자가 복음의 길로 확고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약한 영과 의욕에 굴복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다.

은혜로 유지해 온 시설물

충현 교회는 예배·교육·행정에서 사용되는 본당, 제1·2교육관, 선교관과 주중에 장애인 복지시설로 사용되는 충현복지관, 구역자 사택으로 사용되는 무량관 등 지주적으로 관리하는 건물만 10여 개에 이르는 경기도 광주의 충현 기도원, 충현복지 동산이 있고 충현교회의 유적지 단, 제2비전인 충현 동산,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등 3개의 법인이 있고 미취학 어린이들을 돌보는 충현 어린이집 등이 있다. 또한 상근 사무국은 목회 지원의 관리업무, 성도를 위한 각종 재정적인 일들과 성도들의 정경과 혼례에 관련된 업무 등이 교회 행정에 관련된 일을 맡는다. 현재 교회 행정 중은 일 중 하나에 노후된 건물과 보수, 수리, 영성하는 일과 이를 관리하는 일이다. 그 동안 제2교육관, 선교관 지하실, 보일러실, 본당 음향시설을 보수하였고 앞으로 본당의 일들이 실로 방대하다. 이처럼 방대하고 중대한 일들은 행정담당부서간의 일이

아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전 성도들의 임임을 깨닫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

은혜받은 성도들의 모습

우리는 매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은혜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갈 때 또한 교회의 이곳저곳을 다닐 때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야 한다. 주차할 때는 꼭 주차라인에 차량들의 지도를 받고 서로 배려하여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특별히 회관이나 건물 부근에는 지사를 앞둔으로 주차해 주시고 교회에 관한 일만차량 주차를 삼가야 한다. 풍로 주차 시 연이어 없는 곳에 하시고, 손으로 밀 수 있도록 하는 중립, 사이드 브레이크는 해제하여 주시며 제2교육관 지하 주차장은 항상 공간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이용해야 한다. 예배에 참여할 때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으로 15분 전에 예배실에 참석하고, 대표기도 담당자는 특별히 더 일찍(30분 전)으로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사소한 일이지만 사용이 끝난 화장실 소, 엘리베이터 3층 이하의 걸이 다니기 등의 일에도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큰 믿음의 작은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 모든 일은 자연스레 될 것이다.

은혜를 입은 자들의 자원봉사

현재 교회의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주님의 몸 된 성전 청결을 위해서 물건의 심입조반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교회의 심입조반을 드러낼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의 시설물을 아끼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특별히 더욱 강력한 자원봉사의 활동이 기대된다. 미화 봉사와 달란트 봉사 또한 각 구역별로 구성된 자원봉사의 섬김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을 권고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마 25장)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듯이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단지 우리가 그 은사들을 나누어 위해서만 사용하기에 문제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오직 교회를 세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부를 드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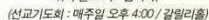
은혜로 행하는 행정

이러한 모든 일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또한 이것이 교회 행정 이 되고 있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충현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마음이 절실하다(마 22:37-39). 예수님은 살지 않게 자기기만, 자기 부인의 삶이었다. 마한가리보다 우리도 자기의 자존심, 자기 교만, 자신을 버릴 때만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마 16:24). 자기기만을 버린 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은혜로 행하는 행정에 전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한다. 십자가의 은혜로 행하는 행정을 통해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 **솔직히** 이번 선교는 내가 한 영혼에게 다녔다고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받은 선교라기 보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안에 깨어지고 내 자신이 얼마나 영만함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보게 하였다. 전도지를 주고 찬양을 가르쳐서 한 아이까지 마음을 맡칠 때까지 두 달을 따르면서 우리가 가르쳐 준 찬양을 끝까지 부르는 것을 보았다. 어느 공원에서 영접기 하도록 후에 나의 기도 모습을 바라보며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한 사람이 하늘을 날다보게 해줬던 그의 얼굴을 비추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근거림과 설렘을 느꼈다. 그리고 애들 선물 중에 하나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와 라마의 아들이라며 라마가 첫 번째대로 낯글 낯글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도 만나보았다. 선교 내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묻게 하였다. 이제 내게 할 수 있는 거 기도뿐이다. 나는 자라게 해서 이가 그들을 사랑하게 하겠다.

♥ 우리는 전도지를 읽어달라고 하기도 하며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준비해 간 성경 구절을 읽어 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전했다. 또 사람들에게서 격려를 주며 이 땅을 통해 치리의 다른 여운이 있다고 했다. 성경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



제1차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기도의 향기

기도에 대한 강의와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와는 또 다르게 이번 청지기 훈련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친구로 삼으시고 또한 이 우주를 온전히 할 동역자로 택해 주셨다. 이렇게 대항받은 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기도 했지만 한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기도시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또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과 중의 하나로 느껴질 때도 있었다.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깊이 느끼고,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주시며 말씀하셨다. 기도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기도의 강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것도 내가 닦고 싶어하는 부분이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갓으시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을 통해 일상에서 공부를 하거나 길을 다니며 마음 속으로 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단 둘이 교제하는 조용한 대화의 강소를 정하고 그 곳에서 매일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나와 이야기하기 원하셨다. 우둔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다. 요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 사귀며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게 하신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삶을 위해 그 예수님의 영적 능력을 경험하며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캠퍼스와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를 받받아 기도의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한다.



서단비 (대학부)

전도는 하나님의 일

지난 해 7월, 나는 한 친구를 대학부에 데려왔다. 그 전까지는 학교 친구들, 특히 대학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 대학 친구들과는 친지하게 속 깊은 이야기할 기회보다는 웃고 떠들기만 하는, 가벼운 만남만 가질 뿐이었다. 그 친구는 재미있고 인기 많은 우리 과의 분위기 메이커였다. 그런 그 친구에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불가능해 보였다. 아니, 나는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고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에게 힘든 일이 생겼다. 항상 웃고 주위 사람들까지 웃게 만들던 그 친구가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빠진 모습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대로 두면 이 녀석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용기를 내서 다가가 "너, 아무리 술 마시고 친구들과 만나도 마음의 상처는 나아지지 않지? 오히려 더 허무하지?" 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조심스럽게 교회에 가자고 권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한번 가볼게."라는 것이 아닌가!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 때 나는 내가 전도를 한 거라는 고만한 생각을 했다. 그러나 전도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에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사했고 또 전도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한 영혼을 죄에서 부르시고 돌아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던 된다.

"하나님, 이런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고 약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저에게 담대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 주변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고은(대학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주여

남은 뱃머리에 다시 그물을 던지던
어리석은 모습의 나날을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던
당신의 온유한 그 목소리

교만한 나의 입술이
당신을 저주하며 버렸던
용서받지 못할 나날들 속에

심장의 고동소리를 하나마다
사랑의 피 값을 고발하던

고통의 시간들이 두려워
도망쳐 버린 어리석은 모습을 기억합니다.

나의 가슴을 찢으며 바다에 그물을 뿌려
하루를 채우던 시간 속에
사람 나는 어부로 부르신 당신을 발견하고
그 눈빛을 가슴에 바르며
돌아갈 수 없는 눈물의 한을 쏟던
나의 괴로움

그렇게 괴로운 인생의 뱃길에
나는 버려졌습니다.

주여

남은 뱃머리에서 다시 그물을 던질 때
당신을 만난 날
기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당신에게 달려가는
멀기만 한 바닷길

갈급한 몸부림으로 헤쳐갈 때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시던
그날 밤 광풍 속 당신과의 만남이 생각나

아픈 가슴을 쥐고 흐느끼던
눈물의 회개를 난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떡과 물고기로 많은 자들을 채워주시던 풍성한 은혜
영혼의 연약한 잔뼈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먹이시던
부드러운 그 모습,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세워주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강진우 (청년1부)

교회탐방 57 김열환, 홍화숙 집사 가정

사랑과 웃음이 넘쳐요!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영상과 된 사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역시 가정이다. 종려주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한나네 가족을 보면서 사랑과 실재를 느낀다.

오전에서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목사라도 아이들이 입들어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더 즐거워합니다. 오며 가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니까요. 정말 감사하지요. (김열환 집사)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게 기도합니다. (김열환 집사)
종든 싫든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을 따라 순종합니다. 주님의 입술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키우기 위해 말씀을 외치합니다. (홍화숙 집사)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좋아요. (김한나, 소년부)
주일에 온 가족이 다 같이 교회 가는 것이 좋아요. (김만술, 초등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주 안에서 지체롭게 자라기를 기도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는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도하지요. (김열환 집사)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넘기는 것과,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찬양 사역에 쓰이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홍화숙 집사)

친구들과 사귀게 지내고 동생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김한나)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김만술)

유치원 잘 다니고 사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김만술, 유치부)



집안 행복해요. (김만술)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보다 교회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아요. (김만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 아이들이 부처에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홍화숙 집사)

천국의 기쁨을 느낍니다. 천국에서 다 같이 모여 앉아 예배드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사모합니다. (김열환 집사)

주님께 부탁 드려요. 늘 전도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김한나)

전도하고 늘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김열환)

최근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지지 않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홍화숙 집사)

최선을 다 해 주일성수하는 가정으로 이르기 바랍니다. (김열환 집사)

인터뷰하는 동안 온통 웃음바다였다. 사람의 웃는 모습만큼 보기 좋은 것이 없다. 행복에 겨워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웃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이 장면을 통하여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일까? 이들이 소망하며 오랫동안 기도하는 찬양 사역이 주 앞에 온전하게 드러지기를 기도한다.

(편집실)

다음 주일 찬송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다음 주일은 주님께서 죄와 사망과 자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영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은 필립 폴 블리스(Philip Paul Bliss, 1838~1876)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한 찬송으로 작시 작곡한 것입니다.

1절은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다. 예수 부활의 놀라운 사건 속에서 천사들은 외치고 사람들은 회개하는 내용의 찬양이 구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2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이 되셨고,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로이 되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찬양한다.

3절은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 예수는 흠과 티가 없는 종보자로서 사랑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놀린 죄인들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영광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심을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믿음, 죄와 죽음의 극복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감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축원의 성도들이 되자.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24	박성순	19 대학부	김학현(15)	751	최호태	19 청년1부	홍현숙(7)	778	조국진	19 대학부	최현숙(7)
725	김윤진	15 청년2부	김예순(3)	752	김태현	19 대학부	김예순(16)	779	이승민	19 청년1부	이승애(12)
726	박형용	19 대학부	장남혜(7)	753	이은수	15 청년1부	김상재(16)	780	이미지	5 장년2부	김영숙(11)
727	조정현	19 중등부	오동환(7)	754	송성진	19 대학부	이영애(8)	781	최창미	17 청년1부	최재희(17)
728	김정민	19 대학부	김정민(17)	755	정민애	15 청년1부	최민수(16)	782	최윤하	19 청년1부	전준호(1)
729	이창근	16 청년2부	정정민(17)	756	김수영	9 예배대부	주승호(2)	783	김수진	19 청년1부	김희선(8)
730	배현수	13 청년2부	장소희(13)	757	안진희	2 장년2부	김은주(8)	784	김영민	19 대학부	조은수(12)
731	신재현	19 중등부	임은아(13)	758	노영	2 장년2부	김은주(1)	785	김성진	1 장년1부	김은재(17)
732	김영주	19 중등부	오동환(15)	759	임재하	19 중등부	김은주(15)	786	정미경	3 장년1부	김경희(16)
733	홍성수	12 장년1부	김영진(12)	760	임기재	4 고등부	장승주(12)	787	조진욱	14 청년1부	전진실(13)
734	이현실	14 장년2부	한민교(18)	761	한혜진	11 청년1부	남영호(12)	788	박재대	19 청년1부	전진실(13)
735	이동현	11 청년1부	이태희(11)	762	전진사	19 고등부	부영주(8)	789	유영민	19 청년1부	서순애(8)
736	김준석	19 중등부	최현재(15)	763	최영재	8 청년1부		790	김국주	19 청년1부	서순애(8)
737	황지현	16 대학부	황지현(16)	764	최진희	19 대학부	최경순(12)	791	김기남	19 청년1부	서순애(8)
738	전은진	19 청년1부	장성진(1)	765	최현우	19 청년1부	문수정(13)	792	김지현	19 대학부	전숙희(7)
739	오보라	19 청년1부	민정민(17)	766	최현우	19 청년1부	정영호(12)	793	최희재	15 장년2부	박영민(16)
740	정지현	19 중등부	문지영(14)	767	최희재	19 청년1부	이영진(12)	794	김지현	12 장년1부	박수재(2)
741	신광희	4 장년2부	김영숙(14)	768	정영진	11 소양부	이영진(11)	795	노동기	12 예배대부	박수재(2)
742	김진희	19 청년1부	박영진(10)	769	이영진	9 장년2부	한희재(8)	796	김성진	15 청년1부	박수재(2)
743	안드레	19 외신부	남영숙(18)	770	유신진	19 외신부	김은주(1)	797	이형근	19 청년1부	박수재(2)
744	서희정	17 외신부	양정자(15)	771	별도	19 외신부	김은주(11)	798	하준	19 청년1부	이은혜(1)
745	오은희	14 장년2부	최정민(15)	772	라미라	19 소년부	소진숙(1)	799	박현진	19 청년1부	이은혜(1)
746	이영주	19 대학부	노현진(15)	773	윤영진	9 장년2부	최현진(10)	800	이민진	19 청년1부	노혜경(10)
747	영민수	16 장년2부	정정민(17)	774	김정민	19 고등부	최현진(10)	801	김성진	1 장년1부	정희희(16)
748	정종수	15 청년1부	박영민(11)	775	김종대	18 장년2부	김민진(18)	802	김민진	19 청년1부	정희희(16)
749	김민준	19 대학부	배영진(11)	776	이숙희	18 장년1부	김영진(13)	803	김민진	19 대학부	김진희(8)
750	최지현	6 청년1부	김두순(8)	777	김옥주	4 장년1부	김은주(1)				

* 홍현숙 집사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모임

1. 임시 당회
일시: 23일(수) 수오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권사3지회 월례회
일시: 23일(수) 수오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별세

1. 김문성 회교장사 김경웅 장사의 부친, 염은식 장사의 장인, 11교구 청파구역/9월 별세, 16일 장례
2. 김영애 성도 박태남 권사의 모친, 염문만 장사의 장모, 9교구/12일 별세, 14일 장례
3. 홍종오 성도 윤정옥 장사의 아들, 15교구 봉천구역/15일 별세, 17일 장례

결혼

1. 조경덕 군(조승기 씨, 최창자 씨의 아들)과 한정선 양(한 일식 성도, 김승자 성도의 딸, 15교구/26일(토) 1200 육군교회 약식장 1층 무궁화)
2. 이현진 군(이영환 씨의 아들, 9교구)과 이효진 양(이현숙 씨의 딸/26일(토) 1300 뉴힐탑호텔 웨딩홀 3층

◆ 단기교민원 원문 문리 실시

일시: 3월 27일(다음주일) 오후 6:10~7:10 장소: 갈릴리움
참석대상: 금년 7월 15일 이전 출발 예정 선교사의 팀장, 총무, 사기, 회계, 의료 담당

◆ 2005년도 상반기 수회교실 개강

일시: 3월 27일(주일) ~ 7월 3일(주일)
시간: 오후 3:15 ~ 4:30 장소: 재교육관 207호

◆ 중원전도대원 문리

일시: 3월 16일(수) ~ 5월 4일(수)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 장소: 배나눔

◆ 2005년 상반기 회계 감사

대 상: 제 1·2·3교목위원의 소속 교회학교
대상기간: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1월
구비서류: 시산표 2부, 원장, 금전출납부, 예산청원 및 정산보고, 영수증철 등
수감시간: 2005년 3월 27일(주일)까지
장 소: 감사위원회실(302호)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담당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주일)
설교자/기도자	정현민/김은철	류병희/진학래	안창덕/김신국	나광영/전계식	정진호/김형곤	안치원/이수경	양재용/김경자

예배담당 안내 (3/23-3/27)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3/23	수요 I	내 모든 시월 무기를 잠을 (호산나 찬양대)	정현민	이금숙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사 (벧전 4:12-13) 김성관 목사
3/23	수요 II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설교로 찬양대)	김희철	장순옥	십자가로 가는 길 (막 14:32-42) 이창수 목사
3/25	금요일회	십자가상의 절연 (헬렐루야 찬양대)	고광현	이 훈	김성관 목사
3/27	주일 I	(예배 전 찬양)	윤은일	남선우	부활절 (행 10:34-43) 이경준 목사
3/27	주일 II	다시 사신 구세주의 소프라노 김소연(전임 독창자)	김이환	강광남	부활절 (행 10:34-43) 고광현 목사
3/27	주일 III	하늘에 찬송이 들려던 그날의 (소프라노 김소연(전임 독창자)	류병희	김종구	부활절 (행 10:34-43) 김성관 목사
3/27	주일 IV	예수 부활 했으니 외 배아울린 임지희(아연 오케스트라)	이성진	노영환	부활절 (행 10:34-43) 조규호 목사
3/27	주일 V	때가 돌아갈 날이 어두니와 버려진 십계산(고등부)	최종철	이갑재	부활절 (행 10:34-43) 장 훈 목사
3/27	주일 찬양	헬렐루야 찬양대 헬렐루야 찬양대	위건광	이부성	부활의 확인 (고전 15:19-26) 김성관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기도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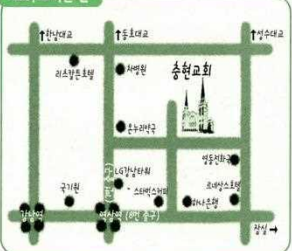
집 회	시 간	차 량
최초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일출부
금요일회	오후 10:30	금요일회 후 분당 일출부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층
장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사 람 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 람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야생)	교육관 207호
	오전 1:00(성인)	
탁 아 부	오전 9:00(성인)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배나눔
충원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어린이	주간교육	충원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3월 중현 기도의 창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며 때마다 십자가 복음의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2005년 하나님께 쓰임받은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중현의 모든 정치가와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3.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4.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뚁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7. 진행중인 수요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전도대원훈련을 통해서 중현의 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8.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원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김은철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2교목	교목위원	당회서기	예배위원	법정종무위원
임영철	이 훈	남선우	김영길	김종구
의무위원	의무위원	의무위원	의무위원	의무위원
최두길	이창호	차진덕	김광남	이광석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안종옥	임무전	이갑재	전종용	전종철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김영수	김단용	황영원	한승규	김영수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김기형	원종철	이희수	안동현	황희환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정태두	박종규	권영호	조종환	배준식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김영달	이성호	최희용	노영환	박철구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정정진	신상수	고계승	강철영	김영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이달용	장정환	김승곤	함철주	윤석진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정선민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종선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 임장식

장년부

■ 부목사

이종태	정현민	박익원	류병희	김영훈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여국근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고광현	위건광	김이환	장 훈	이현덕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이희식	최종철	최종철	안치원	정종선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양재용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이경준	이창수	김종희	윤수원	황전섭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정성영	이경준	김태서	김성훈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 여전도사

장년부

■ 전담집사 서준성

장년부

장년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